

중증 난치성 천식 새로운 치료제 개발 길 열었다

전북대 이용철 교수팀, PI3K 델타 아형 억제제 투여로 폐 염증 개선

기관지 천식은 세계적으로 3억 명이 앓고 있는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증 기관지 천식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한 치료제로 스테로이드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전신적 부작용이 심해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중증 기관지 천식을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전을 전북대 이용철 교수팀이 밝혀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교수팀의 중증 난치성 천식 병인 및 치료에 대한 연구 결과는 호흡기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인 'Thorax' (IF 9.655)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포스포이노시타이드 인산화 효소(Phosphoinositide-3 Kinase, PI3K) 델타 아형'의 활성화가 기관지 상피세포의 선천면역 조절을 통해 알레르기성 기도 염증에 중요하게 관여함을 밝혔다. 즉, 상피세포에서 이 효소가 활성화되면 기도의 염증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팀은 기존 스테로이드제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천식 동물모델의 폐 염증이 PI3K의 델타 아형의 억제제 투여로 인해 뚜렷하게 개선됨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용철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현재 연구팀에서 개발 중인 포스포이노시타이드 인산화 효소 델타 아형 차단제가 향후 중증 천식 치료제로서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전적 배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Thorax 지의 편집위원들 또한 'Highlights from this issue'란을 통해 이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준결승전의 영국과 아르헨티나 경기'에 비유하여 비중 있게 다루어 이번 연구 결과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번 2018년 및 지난 2016년 두 차례의 Thorax지에 게재된 연구결과들은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이용철 교수의 지도를 받은 정재석 전북대병원 전임의가 제1저자로 연구를 주도했다.

정재석 전임의는 전북대 의과대학의 첫 '임상교수 양성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연구 성과가 나온 만큼 연구 역량 증진을 위한 전북대 의과대학과 전북대병원의 그간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용철 교수는 현재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전북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보건복지부 지정 '임상현장발굴 국가핵심중개연구-난치성 천식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 부분' 책임연구자 및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기초연구사업 도약연구'의 책임 연구자로서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용철 교수 / 전북대 의과대학 교수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취약계층 삼계탕 무료나눔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김진)은 17일 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초복 맞이 삼계탕 무료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초복을 맞이하여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 및 장애인 400여명의 건강을 위해 점심으로 삼계탕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제공했다.

특히 이번 나눔 행사에는 장영수 장수군수 부인 유영경 여사와 새마을운동장수군지회부녀회 회원 18명이 배식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최영자씨에게 떡 400인분과 푸드뱅크에서 삼계탕 250마리를 후원받아 풍성하게 진행됐다.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김진 관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이용자들이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한 여름을 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2018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료

진안군은 17일 이항로 군수, 신갑수 군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각 기관사회단체장 및 여성지도자, 여성단체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문화체육관광에서 가졌다.

이날 행동을 일상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기념식과 양성평등 퍼포먼스, 화려한 마당 등이 진행됐으며, '자 ~ 이제 행복을 선택하자'라는 주제로 정선주 강사의 특강이 이어져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기념행사는 10월 18일~21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되는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을 위해 참석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홍삼축제 홍보 티셔츠를 입고 행사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항로 군수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폭력에 아파하지 않는 평등하고 안전한 진안군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고창서 하절기 비위예방 실무진 토크 콘서트 열어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최근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하절 휴가철을 맞아 비위예방 토크콘서트 열었다.



최근 문제가 된 성 비위, 음주운전 등을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한 비위예방은 물론 여름 휴가 분위기에 들떠 소극적 업무태도 및 공직기강 해이를 근절하여 올바른 분위기를 정착하자는데 마음을 모았다.

청문감사관 송태석 경감은 "의무반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특히 휴가철 공직자로서 품위와 질제된 행동을 통해 단 한건의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른공직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성재 경찰서장은 "휴가철 기강해이로 인해 주인의 신뢰를 깨뜨려선 안 된다며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 유등면 주민자치위원회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순창 유등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봉덕)는 최근 삼진강군민체육공원에서 유등교까지 삼진강변자전거도로에서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펼쳐 클린순창 운동에 앞장섰다.

이날 행복홀씨 입양사업에는 회원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자전거도로변 휴닝를 제거 및 주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봉덕 위원장은 "유등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의 활동이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또 유등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순창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장서 활동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희 기자

주계파출소, 병원 응급실 난동 행위 대응책 마련 노력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 주계파출소(소장 김수기)는, 최근 응급실 등에서 의료진에게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무주군보건소와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주계파출소장과 현장 출동직원, 보건소직원, 의료담당과장 2명 및 담당계장, 간호사 등이 참석하여 의료진 대상 난동행위 사례에 대해 설명한 후 그동안 의료진이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경찰이 업무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회의결과 주계파출소는 우선적으로 보건소와 파출소간 한달음시스템 등 핫라인 구축 및 경찰관이 인술한 환자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시행령 등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규칙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경찰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